

벤츠, 올해 신차 9종 나온다

A클래스·AMG GT·마이바흐 등 부분변경 모델 6종도 국내 출시 "5년 연속 수입차 1위 지킬 것"

메르세데스-벤츠가 올해 신차 9종과 부분변경 모델 6종 등 총 15종을 국내에 출시하며 5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 수성에 나선다.

20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벤츠는 올해 국내에 신차 등 15종을 투입한다.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를 비롯해 EQ, AMG, 마이바흐 등 서브 브랜드를 아우르는 신차 9종과 부분변경 모델 6종을 국내에 출시할 계획이다.

벤츠 A-클래스 세단과 뉴 CLA 신차가 나오고, E-클래스에서 쿠페·카브리올레 등 부분변경 모델을 선보인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라인에서는 GLA·GLB·GLC 등 모델을 새로 투입한다.

최고급 리무진 브랜드 마이바흐에서는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풀만'과 SUV 모델인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를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다.

고출력 라인업인 AMG에서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C' 모델과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R' 모델 신차를 국내 최초로 투입하며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부분 변경 모델도 선보인다.

벤츠는 전동화 모델로는 전기차 EQ 브랜드에서 총 6종의 EQ 파워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모델과 9종의 EQ 부스트 탑재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벤츠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실험 차량 'ESF'를 처음 공개했다. '더 뉴 GLE'를 기반으로 개발된 ESF는 자율주행 모드 운행 시 가속·브레이크 페달, 스티어링 휠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 공간을 확보하고 충돌 시 부상 위험을 낮추도록 설계됐다.

벤츠는 올해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을 위해 국내에서 스타트업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메르세데스-벤츠 모기업인 다임러 그룹은 2016년부터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협업 플랫폼인 '스타트업 아우토반'을 통해 스타트업 발굴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올해 한국에서 세계 7번째로 개

하는 등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벤츠는 올해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출고 준비 센터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 모든 전동화 모델 출고 과정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 에너지로 대체하며 친환경 충전 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 전국에 전시장, 서비스센터를 추가하며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메르세데스-벤츠 기브' 프로그램 등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벤츠는 지난해 국내 시장 판매에서 역대 최다인 7만8133대를 기록해 전년보다 10.4% 성장하며 4년 연속 수입차 분야 1위에 올랐다. 이는 2위인 BMW(4만4191대)와 3만3000대 이상 차이가 나고, 3위 렉서스(1만2241대)보다 6배 많은 실적이다.

벤츠는 지난해 국내에서 E-클래스가 총 3만9788대 팔려나가며 인기를 끌었고 C-클래스, GLC, CLS 등 모델도 골고루 좋은 판매 성적을 내 실적을 견인했다. 벤츠 E300과 E300 4매트 모델은 각각 1만3607대, 1만2599대가 팔려 나란히 수입차 판매 1·2위에 올랐다.

1/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제네시스 첫 SUV 'GV80' 나왔다



제네시스는 최근 경기도 킨텍스에서 럭셔리 플래그십 SUV 'GV80' 공식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현대차 제공>

2017년 콘셉트 카 이후 3년만에 후륜 구동 기반 대형 SUV 모델 내부 인테리어 깔끔·다양한 컬러

현대자동차 고급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GV80'이 공식 출시됐다. 2017년 4월 콘셉트 카를 선보인 이후 3년 만이다.

20일 현대차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최근 GV80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GV80'은 제네시스가 처음 선보이는 후륜 구동 기반의 대형 SUV 모델이다. 'GV80'은 '역동적인 우아함'을 담은 외관을 비롯해 대형 SUV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인 편안하고 깔끔한 내부 인테리어, 다양하고 매력적인 컬러 등이 특징이다.

'GV80'은 대형 SUV이지만, 쿠페와 같이 날렵하게 떨어지는 외관이 특징이다. 또 측면부 퀼드 램프에서 시작해 도어 상단부를 거쳐 후면부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완만한 포물선인 '파라볼릭 라인(Parabolic Line)'으로 볼륨감과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첫 선을 보인 'GV80'은 디젤 3.0 모델이다. 직렬 6기통 3.0 디젤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278마력(PS), 최대토크 60.0kgf·m 등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췄다. 복합 연비는 11.8km/ℓ다. (5인승·2WD·19인치 타이어 기준)

앞으로 가솔린 2.5와 3.5터보 모델을 추가해 총 3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구성된다. 엔진·컬러·구동방식·옵션 등을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는 '유어 제네시스'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

현대차가 개발한 최신 기술이 대거 적용했다. 능동형 노면 소음 저감 기술, 인체공학 학적 시트 시스템인 '에르고 모션', 고속도로 주행보조 등이다. 능동형 노면소음 저감 기술은 노면 소음을 실시간으로 분석한 뒤 0.002초 만에 반대 위상의 음파를 발생시켜 소음을 낮추는 기술이다. 미세먼지 센서를 통해 실내 공기 질에 따라 공기 청정 모드를 자동으로 작동하는 공기 청정 시스템도 갖췄다. /박정욱 기자 jwpark@

2020 광주전남 경제리더에게 듣는다 박래석 기아차 광주공장장

"셀토스 돌풍 해외시장 본격 확산"

"기아차 광주공장은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미래 지속가능한 광주공장의 생존능력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박래석 기아차 광주공장장은 '2020 새해'를 맞이하는 포부로 이같이 말했다. 박 공장장은 2020년 비즈니스 목표를 '단단하고 믿음직한 젊은 공장'으로 잡았다. 초점은 갈수록 격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서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다.

먼저 '단단하고'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다. 기본과 원칙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다. '믿음직한'은 신뢰 기반의 현장 개선을 하자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젊은 공장'은 소통과 협업의 광주공장을 만들자는 뜻이다.

광주공장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객 관점 운영체제 전환 ▲중장기 수익개선 고도화 ▲인직원 마인드 향상 등 세가지 전략 방향을 정했다.

특히 올해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셀토스가 국내는 물론 북미 등 해외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셀토스 판매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생산활동에 힘쓰고, 고객 맞춤형 품질활동으로 브랜드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셀토스 성공은 지난해 광주공장 생산량 반동의 일등공신이다.

지난해 7월 양산을 시작한 셀토스는 먼저 국내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켜 출시 4개월만인 11월 기아차 차종 중 월간판



기아차 차종 판매 1위 브랜드 신뢰성 확보 주력

봉고3 EV 등 생산에도 전력 지역과 동행 사회공헌 강화

매량 1위를 차지했으며, 11월과 12월 두달 연속 월간 생산량 1만대를 돌파했다. 셀토스 선전에 힘입어 기아차 광주공

장은 2019년 45만5865대를 생산해 2018년 생산량 45만5252대 대비 0.1% 증가로 반등했다. 올해도 셀토스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또 최근 양산에 들어간 봉고3 EV 등 생산 이벤트 달성에도 전력한다.

기업경쟁의 30%를 차지하는 기아차 광주공장이 지역과 동행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나눔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중추기업으로서 사회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공장은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기아 챌린지 콘서트'를 적극 후원해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공연 관람 기회와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해 문화감성을 높이고 꿈을 키워주겠다는 것이다. 또 '기아 토크 콘서트'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기아 위드 사업'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는 기업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

박 공장장은 지역민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했다. 그는 "기아차 광주공장은 광주에서 문을 열어 50년이 넘게 지역민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향토기업"이라며 "기아차가 잘 돼야 광주가 잘 된다"는 지역민의 이야기를 항상 가슴에 새겨 광주공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1/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가장 높은 곳 오른 전기차'

해발 5731m 티베트 사울라 고개 정상 등극 기네스 등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전기차는?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EV)이다.

20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인도에서 제작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이 해발 5731m인 티베트 사울라 고개 정상에 올라 '가장 높은 고도에 도달한 전기차'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다.

코나 일렉트릭은 지난 2018년 9월 중국 니오의 중형 SUV 'ES8'이 세운 해발 5715m보다 16m 더 오르며 기록을 썼다.

코나 일렉트릭은 네팔 남동부를 출발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1519km 산길을 주행해 8일 만에 사울라 고개 정상에 올랐다. 이 구간은 평균 온도가 섭씨 영하 30~35도로, 이런 환경에서 자동차 연비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전기차로서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이라고 현대차는 소개했다.

코나 일렉트릭은 한 번 충전 시 최대 452km를 주행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휴대용 충전기를 활용했다. 내리막길에서는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 등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하강 속도를 조절했다.

1/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